

# “탄핵 늦추고 퇴진 시간 끌기...울화통 터지는데 반성조차 없어”

## 박대통령 3차담화 지역민 반응

2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자신의 퇴진 일정을 일임하는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자연 전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성원 박근혜정권 퇴진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이번 3차 담화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의 행위로, 참으로 불행한 시국을 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인면수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 탄핵 절차에 제동을 걸고 새누리당 내 이탈 세력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금 정해진 담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한 뒤 자신의 잘못을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를 국회로 넘겨 시간을 끌고 아니라 즉각 퇴진하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구속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담화에서도 대통령은 자기 반성이 전혀

## 한마디 사과도 없는 담화 실망

### ‘국가 위한 것·모르쇠’ 변명

### 퇴진·수사가 국민 위한 도리

### 더이상 우리를 화나게 말라

없었다. ‘순수하게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나는 몰랐다’는 식이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이 정도인데 촛불이 어떻게 꺼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순수성이 의심된다. 탄핵국면을 피하려고 공을 다시 국회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능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남도의회 주연창(국민의당, 여수 4)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데, 이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이번 담화는 국회에 기대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이

다. 하루빨리 국민 안정을 위해서 바로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만식 (사)광주민족애솔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고 국민을 위해 저런 행동을 했다는 데서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정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박정희 정권을 포함한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성향에 맞는 예술단체에만 지원사업을 몰아주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며 “이 다음에는 꼭 민주정부가 들어서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사원 박모(40·담양군 고서면)씨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고 주변인들의 잘못에 의해 마치 (대통령이) 피해를 입은 듯한 내용이었다”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만 드러낸 담화였다. 남은 것은 오로지 탄핵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촛불 더 거세게 타오른다

### 노동자·학생·상인 등 오늘 총파업·시민불복종 운동...내달 3일 6차 집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촛불 민심’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학생들은 동맹 휴업으로, 중소기업들은 휴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을 이어간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지난 29일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정치총파업’과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총파업’과 ‘시민불복종’ 운동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총파업대회에 참가하고 이어 촛불집회에 가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0일 정치총파업에는 금속노조 15만명을 포함해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등 소속 조합원 30만명이 파업 결의와 연가투쟁 등으로 참여한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30일 오후 4시 철도노조 호남본부, 보건노조 등 노동자 3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순천 충효로에서도 같은 시각 전남지역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25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가 열린다. 광주·전남지역 파

업 참가자들은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촛불집회에도 참여한다.

주말인 오는 1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제6차 박근혜퇴진 시국촛불대회가 열린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금남로에서 시국촛불대회를 열고 오후 8시부터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앞서 ‘박근혜 하야 시국’, ‘만민공통의 촛불이 만든 나라’ 등 행사를 5·18기록관과 금남로 본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부산 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 檢, 현기환 전 수석 소환 엘시티 비리 수사 정·관계 정조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회장을 회상된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지인에게 특혜 분양해준 혐의 등으로만 구속기소했는데 추가 의혹 수사의 출발이 바로 현 전 수석 소환이다.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은 표류하는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책임 준공’을 약속하며 시공을 맡은 것과,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 의문이 있었느냐다.

또 아파트 건축 허용과 건물 높이 제한 해제, 맞춤형 투자임대 적용 등 특혜성 인허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관심사다.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등을 동원해 검찰수사를 무마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다.

검찰은 이미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제임 시절 포스코건설 대표를 만난 뒤 엘시티 사업이 술술 풀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의 자금조달에는 부산은행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례 농촌마을에 영화관 생긴 사연은?

### 자연드림파크 개장...지역 경제활성화 한몫 귀농·방문객 늘고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인구 2만7000명의 농촌 마을인 구례군에 2년 전 문을 연 친환경 식품 가공·유통단지인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2014년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오픈하면서 현재까지 51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중 430명이 구례 출신으로, 가족 단위로 고향에 돌아온 인구가 지면 실재 귀농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생산액 규모는 연간 600억원 이상으로, 이곳에서 창출하는 근로소득 규모만 109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전원 정규직 채용과 최저 시급 7300원 지급 등 도시의 중소기업 못지 않은 근무여건을 제공해 근로자 평균 연령이 38세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층이 많이 돌아와 지역에 생기가 돌고 있다.

덕분에 해가 지면 한산하던 구례읍 내에도 햄버거 체인점, 카페 등이 늘어나는 등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감소추세였던 구례군 전체 인구

도 첫 공장을 연 2012년 2만7067명, 2013년 2만7115명, 자연드림파크 전체 개장을 한 2014년 2만7170명, 2015년 2만7308명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소비재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의 생산시설인 자연드림파크는 단순히 농산물만 유통뿐 아니라 영화관, 수제 맥주 레스토랑, 친환경제품 체험관 등을 통해 주민 휴식공간 및 관광 지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연드림파크 방문객도 늘고 있다. 개장 첫해인 2014년 4월부터 연말까지 5만3000명 수준이었던 지난해에는 16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8만여명이 이곳을 찾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방문하고 있다.

구례군과 아이쿱생협은 고용목표 1000명 달성을 위해 자연드림파크 2단지 및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 가족호텔 건립, 주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 내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120명 선발 ‘역대 최대’

정부는 내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0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공직 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2017년 지역인재 7급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10명 늘어난 11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행정 63명, 기술 57명이다. 연도별 선발 인원을 보면 2013년 90명, 2014년 100명, 2015년 105명, 2016년 110명이다.

추천 절차를 보면 먼저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선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1년 동안 수습근무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연합뉴스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물에 태극기 잘못 그려

교육부가 지난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와 함께 교과서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잘못된 태극기 그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면>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교육부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한 국정교과서 홍보 그림에서 태극기의 패인 ‘감’과

‘리’의 위치가 뒤바뀌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그림은 ‘잘 만든 역사교과서 이야기’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물로, 국정교과서 취지와 내용 설명이 담겨 있다. 현재 교육부 공식 페이스북에는 이 카드뉴스가 삭제돼 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 혈당조질

##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대한민국 당노특허 2건 등록!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홍나무뿌리 검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수령

**010-3598-7080**

#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 ~ 2상 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